

## 義原君(1661~1722) 墓 出土織物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Fabrics from ewongun's Tomb(1661~1722)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조 효 숙\* · 안 지 원

\*Prof.,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Hyo-Sook Cho\* · Jee-Won Ahn

(2002. 3. 21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type of fabrics and to analyze weaving method on the silk fabrics from ewongun's Tomb.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Among the 26pieces of excavated clothes, 98% of them were made of silk fabric and among them 84% used high-quality non-patterned silk. I would assume, therefore, that the tomb was owned by a person who had a dignified yet humble taste of higher society.

2) The weaving methods of textiles are plain weave, twill weave, satin weave. Plain weave includes spun silk tabby, fine filament silk tabby, raw silk tabby, thine silk tabby, damask on tabby, twill weave includes twill damask with different directions, satin weave includes non-patterned satin damask, 5-end satin damask(4/1 warp faces ground, 1/4 weft faced pattern). As the result of literature survey, I settled the names of textiles as follows; tabby was called Myunju(綿紬), Saeju(細紬), Saengcho(生絹), and Sookcho(熟絹) according to the kind and density of silk threads used; Damask on tabby was called Hwamunju(花紋紬) Twill damask was called Hwamunnung(花紋綾); Satin damask was called Hwamundan(花紋緞) if they bear patterns by themselves or Mumundan(無紋緞) if they don't have any patterns on them.

**Key words:** Excavated Fabrics, Weaving method, non-patterned silk; 출토직물, 제직방법, 무문견직물

## I. 서 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仁祖의 3男 麟坪大君의 손자인 義原君(1661~1722)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총 86점의 직물류이다. 1999년 7월 12일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한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묘역을 이장 작업하던

중, 능창대군 묘, 의원군 내외 묘, 이연응 묘, 이재극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으나 능창대군 분묘에서 나온 복식은 새로운 이장용 관에 시신과 함께 안치되었고 그 외의 복식들은 경기도 박물관에서 수거하여 정리하였으며, 2001년 이들 자료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묘주가 확실한 분묘들이 계속 발굴되고, 유물이 조사되어서 시대별로 직물자료들이 충분히 축적될 때 한국의 직물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원군 복식 유물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분묘에서부터 원래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수습되었으므로 실제로 시신이 입었던 습의와 염의,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보공용 복식 등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출토복식과 달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기에 염습의용으로 어떤 유형의 직물이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서 출토된 염습의 직물유형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직물의 제직특성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더욱이 조선후기에는 수의 즉 염습의용 직물명칭이 비교적 자세히 적혀있는 문헌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군 분묘에서 출토된 수의용 직물들을 그러한 문헌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당시에 실제로 호칭되었던 직물명칭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의원군의 묘에서 출토된 전체 직물들의 유형을 분류하여 당시에 어떠한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의원군의 유물 중 염습의에 사용한 직물유형과 기존 출토복식 중 염습의가 구분되어 발굴된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조선후기 염습의 직물사용의 경향을 조사하고, 이 출토 사례들을 조선시대 상례 문헌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시대에 실제로 호칭되었던 직물명칭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이번 출토직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평직과 수자직의 견직물 종류가 많이 출토되었으므로 이들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17세기말에서 18세기 초기의 평絹織物 및 縐子織으로 제직된 段類의 경위사의 상태, 조직, 직물의 두께 및 폭 등 일반적인 제직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섬유의 종류

출토직물을 촉감 및 시각적 태에 의하여 구분하고 구분이 애매한 것은 100배, 500배 현미경에 의한 측면 및 단면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견섬유, 마섬유, 면섬유로 구분하였다.

2) 직물 조직 및 실의 굵기, 꼬임

실체현미경을 사용하여 15배, 30배의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바탕과 무늬의 조직을 판별하고, 실의 굵기와 꼬임 방향을 S, Z연으로 표시하였다.

3) 직물의 밀도

Dencimeter E type과 10배의 밀도측정기로 1 inch안

의 경위사 울수를 5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냈으며 이 수치를 확대 사진과 비교하여 재수정하였다.

4) 직물의 두께

후도계(Mitutomo, Japan)로 5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mm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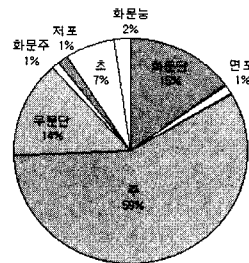
II. 의원군 출토직물의 유형

의원군 묘에서 출토된 직물류는 크게 견직물과 면직물, 마직물로 구분된다. 견직물은 평직으로 제직된 紬, 絹와 수자직으로 제직된 花紋段, 無紋段과 평직 바탕에 능문으로 제직된 紋紬와 능직의 花紋綾이 있으며, 마직물은 苧布, 면직물은 綿布가 있다.

좀 더 자세히 분류하면 직물류는 총 86점인데<sup>1)</sup> 綿紬가 50점으로 59%, 絹가 5점으로 7%, 花紋段이 13점으로 15%, 無紋段이 12점으로 14%, 紋紬가 1점으로 1%, 花紋綾이 2점으로 2%, 綿布가 1점으로 1%, 紵布가 1점으로 1%로 구분되었다[그림 1]. 즉, 심의에 사용된 저포 1점과 버선에 사용된 면포 1점을 제외하면 전체의 98%가 견직물이다.

이상은 전체 출토직물을 분석한 경우이고 염습용 복식에 사용된 직물만을 정리하면 전체 29점의 복식 중에서 저포로 만든 심의 1점과 면포로 만든 버선 1점을 제외하고 27벌이 모두 견직물이다. 27벌의 견직물 의복 중에 단령 1벌, 철릭 1벌, 배자 2벌 등 4벌만 문직물이었으며 23벌은 모두 무문직물이었다<표 1>.

의원군 묘에서 출토된 섬유의 종류를 판별할 때 대부분은 시각과 촉감으로 판별이 가능하였으나, 구분



[그림 1] 출토직물의 종류

〈표 1〉 복식별 직물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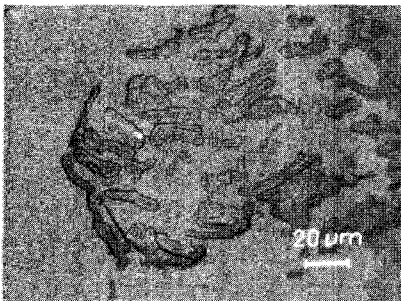
복식명칭	유물번호	직물구성		용도
		겉	안	
복건	No. 18	무문단	-	습용
단령	No. 19	운문단	화문단	습용
철릭	No. 25	화문단	—	대소렴용
도포	No. 53	주	세주(건)	대소렴용
주의	No. 23	초	주	대소렴용
심의	-	저포	—	습용
소창의	No. 4	주	주	습용
	No. 26	속초	주	대소렴용
	No. 28	세주(건)	주	대소렴용
	No. 49	세주(건)	주	대소렴용
	No. 50	주	주	대소렴용
대창의	No. 6	주	주	습용
	No. 24	주	주	대소렴용
	No. 45	주	주	대소렴용
한삼	No. 3	주	—	습용
중치막	No. 1	주	주	대소렴용
	No. 5	주	주	습용
	No. 44	세주(건)	주	대소렴용
	No. 54	무문단	주	대소렴용
	No. 56	초	주	대소렴용
전복	No. 31	화문릉	주	대소렴용
	No. 36	화문단	주	대소렴용
반비	No. 17	주	주	대소렴용
바지	No. 14	주	주	습용
	No. 20	주	주	대소렴용
	No. 47	주	주	대소렴용
	No. 48	주	주	대소렴용
버선	-	면포	면포	대소렴용
습신	No. 9,10	무문단	무문단	습용

이 명확하지 않은 몇 가지 종류는 섬유 단면 및 측면을 100배, 500배의 현미경 확대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하였다.

심의용 직물은 마섬유인데 촉감으로 대마와 저마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단면을 확인하였다. [그림 2]는 심의용 직물의 경위사 단면을 500배 확대한 것으로 단면의 형태가 납작하고 기다란 타원형에 가까우며, 그 속에 기다란 동공이 있었으므로 紵布임을 알 수 있었다. 버선의 섬유 역시 시각과 촉감 판별, 확대경 관찰의 방법으로는 정확한 섬유 판별이 어려웠다. 경위사의 측면에 잔털이 많은 형태로 보아 면방사 혹은 견방사와 같은 방적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거친 평견직물인지 혹은 고운 무명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시 단면을 촬영하였고 촬영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가운데 동공이 있으므로 견섬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단면의 형태는 땅콩모양으로 꼬부라진 전형적인 면섬유의 단면이 아니고 머어서화(mercerization)하여 원형으로 변형된 면섬유의 단면으로 판별하였다. 즉 정련표백에 의해 면포가 시각적 느낌이나 촉감이 면주와 비슷하게 변질된 것이다.

### III. 염습의 직물유형에 관한 문헌 및 유물자료

조선시대의 출토 복식 중 의원군의 출토유물과 같이 염습의가 구분되어 출토된 남자복식 사례들만을 〈표 3〉과 같이 정리한 후, 이를 〈표 1〉의 의원군의 염습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후기 염습의에 사용하였던 직물들의 유형들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검토하



[그림 2] 저포(no 11), 섬유 단면(500배)



[그림 3] 면포(버선), 섬유 단면(500배)

고자 한다. 더욱이 이처럼 염습의가 제대로 출토된 사례는 염습의용 소재가 기록된 조선 후기 상례관련 문헌자료의 직물명칭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물들이 당시에 어떻게 호칭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출토복식 조사에서 연구자들마다 각각 다른 직물명으로 부르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2〉는 조선 후기 상례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그 중에 의원군의 몰년과 가장 근접한 반가남자 상례자료는 송시열(1698)<sup>9)</sup>과 윤염(1771)<sup>10)</sup>의 기록이다. 이들의 자료에서 頭衣用 직물에는 현단, 모단, 공단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염(1771)의 상례자료부터는 공단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表衣用으로는 송시열(1698)의 심의가 紗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윤염의 자료에는 표의의 소재에 관

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표의에 띠 大帶用 직물에는 紡紗紬, 禾花紬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었다. 上下衣用 직물에는 白紡紬, 禾花紬, 紬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바지용으로는 화화주, 백방주와 같은 특별한 명칭의 紬가 아니고 단순히 紬로만 기록되었다. 버선은 모두 細木, 木棉 등으로 기록되어 면섬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습신, 악수, 떡목은 玄段, 帽段이라는 無紋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염습의용으로 사용된 소재의 명칭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반가 자료이외에 의원군은 왕족이므로 몰년이 가장 유사한 숙종(1720)의 빈전도감의궤에 기록된 직물명칭도 조사하였다. 염습의로 사용된 직물명칭은 頭衣用으로 皂羅, 의복의 걸감으로 紵絲와 雲紋段, 花紋段, 羅, 絹, 熟絹, 안감으로 花絲紬, 紡絲紬, 鼎紬 등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악수와 떡목은 羅와 絹를 사용하고

〈표 2〉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염습구용 직물

출처	頭衣	表衣	腰帶	上衣	下衣	足衣	手衣	기타
國朝五禮儀 국훈(1475)	皂羅 (首冠, 網巾)	-	白羅 (大帶)	紵絲(褶履), 羅(圓領) 絹(裏肚, 汗衫)	絹(袴2)	絹(襪)赤紵 絲(履)	青羅/縹 (握手)	青羅/縹 (幘目)
國朝五禮儀 사서(1475)	皂紬(幘頭), 皂紵(網巾)	-	白紬 (大帶)	-	-	黑紬(履)	玄帛 (握手)	縹帛(幘目), 新綿(充耳)
喪禮備要 (1620)	黑縹(網巾, 幅巾)	白細布 (深衣)	白縹 (大帶)	紬·綿布(汗衫) 有絮(袍襖)	綿·布(單袴), 紬 ·綿, 有絮(袴)	有絮(襪), 黑紬(履)	-	縹帛·紬, 有 絮(幘目) 紬·縹(冒)
喪禮諺解 (1623)	모단(복건) 검은김 (치포관)	흰가는베 (심의)	흰김 (대대)	면주·뽕(한삼) 뽕오라기(과두)	면주·무명(고) 면주·뽕(단고)	검은김· 면주(말, 혹이)	모단·검은 면주 (악수)	숨모단/혹 증·면주 (떡목)
宋時烈 (~1698)	玄段 (幅巾, 網巾)	紗(深衣)	紡紗紬 (大帶)	白紡紬(裏肚) 紬(衫, 襦亦古里)	白紡紬(勒帛), 紬(單袴, 襦袴)	綿木(襪)	玄段 (握手)	玄段(幘目) 廣織(質殺)
尹 琰 (~1771)	帽緞(幅巾) 貢緞(網巾)	-	禾花紬 (大帶)	紬(中赤莫, 長衣) 禾花紬(赤衫)	禾花紬(單袴, 腰帶, 多紅, 行纏), 紬(袴)	細木(襪), 帽緞(雲鞋)	帽緞 (握手)	-
四禮便覽 (1844)	黑縹·紬(幅巾), 黑縹(網巾)	細紬 (深衣)	白縹 (大帶)	紬綿布(汗衫)	紬綿布(單袴, 袴)	黑絹· 皂布(履)	帛·紬 (握手)	紬·綿布 (裏肚)雪綿子 (充耳)
金洙根 (~1854)	貢緞(網巾)	極細胞 (深衣)	貢緞(大帶), 眞品絨絲 (條帶)	貢緞(單衫, 中赤莫2), 八兩紬 (裏衣)	貢緞(單袴) 十兩紬(袴) 禾漢緞(行纏)	有絮(襪), 大貢緞(履)	大貢緞 (握手)	大貢緞 (幘目)
金炳國 (~1904)	貢緞 (裏頭, 網巾)	熟甲紗 (幅巾), 細布(深衣)	貢緞 (大帶), 眞絲(條帶)	貢緞(單衫, 赤古里, 中赤莫, 長衣)	貢緞 (單袴, 袴, 行纏, 腰帶, 多紅)	貢緞 (襪, 履)	貢緞 (握手)	貢緞(幘目) 雪綿子 (充耳)

버선은 羅, 습신은 廣的을 사용하였다.<sup>5)</sup>

이상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반가용 염습의 소재에 의복용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紬를 많이 사용하였고 두의나 족의, 수의, 염습제구용으로는 무문단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용 염습의 소재는 대부분 紵絲, 羅, 絹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紬는 안감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분묘중 염습의가 구분되어 출토된 사례는 <표 3>에서와 같다.<sup>6)</sup> 남자의 頭衣類는 복건과 소모자, 망건, 사모 등이 출토되었는데 생존 시기가 가장 이른 이석명(1583)<sup>7)</sup>의 소재가 평견직물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군(1722)과 같이 無紋段을 사용하였다. 表衣用으로 심의와 단령이 출토되었는데 심의 소재는 의원군과 이연응(1879)<sup>8)</sup>의 경우는 저포를, 이익정(1782)<sup>9)</sup>의 경우는 무문단을 썼으며, 단령의 소재는 이응태(1586)<sup>10)</sup>의 것만 면포로 만들었으며 최숙(1698)<sup>11)</sup>, 선산김씨(18세기 전 후)<sup>12)</sup>의 것은 의원군과 같이 운문단과 화문단으로 되었다. 帶는 眞絲로 紈條帶, 紬와 무문단

으로 만든 角帶 및 大帶등이 출토되었다. 表衣 안에 입은 袍類의 소재는 이석명은 모두 고운 평견직물<sup>13)</sup>로 만든 액주름, 철릭, 답호가 출토되었고 이응태는 마포 철릭과 면포 직령이 출토되었다. 최숙의 것은 고운 평견직물<sup>14)</sup>로 만든 직령포와 창 의가 출토되었고 선산김씨는 綾으로 만든 중치막과 고운 평견직물 소창의, 거친 평견직물 창 의가 출토되었다.<sup>15)</sup> 의원군 역시 고운 평견직물로 만든 소창의, 중치막, 창 의가 출토되어<sup>16)</sup> 이응태의 것을 제외하면 이석명, 최숙, 선산김씨, 의원군의 것 모두 편복의 포류에 대부분 고운 평견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00년대 말기 이후에 출토된 이익정, 이연응의 것은 모두 평직이 아닌 수자직의 무문단으로 만들어 전 시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지, 저고리의 소재는 이응태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견직물류이며, 말기의 이연응의 것만 수자직의 무문단으로 만들었다. 버선류는 면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응태의 것은 마포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말기 이연응의 것은 무문단을 사용하였다. 履나 靴

<표 3> 조선시대 출토된 염습구용 직물 (남자 복식 출토 사례에 의함)

염습의 출처	頭衣	表衣	腰帶	上衣	下衣	足衣	手衣	기타
李碩明 (1583卒)	紬(복건, 소모자)	—	—	紬(저고리, 액주름, 철릭, 답호)	—	—	紬(악수)	紬(떡목)
李應台 (1586卒)	無紋段(소모자)	綿布(단령)	紬(포대) 眞絲(도아)	苧布(적삼) 麻布(한삼, 철릭) 綿布(저고리, 직령)	紬(개당고), 綿布(합당고, 개당고, 행전), 麻布(합당고), 苧麻(합당고)	綿布(버선) 麻布(습신)	無紋段(악수)	無紋段(떡목)
崔權 (1698卒)	無紋段(사모, 망건)	雲紋段(단령)	無紋緞(각대)	絹(창의, 직령) 紬(적삼)	紬(바지)	無紋段(목화)	無紋段(악수)	無紋段(떡목)
선산김씨 (18세기 전 후) (미발표)	無紋段(사모, 망건)	紋段/紋段(단령)		綿紬(한삼, 창의), 絹(소창의), 綾(중치막)	綿紬(홀바지, 바지)	無紋段(화)	無紋段(악수)	無紋段(떡목)
義原君 (1722卒)	無紋段(복건, 망건)	苧布(심의)	絹/無紋段(대대)	雲紋段(단령) 紬(한삼, 소창의, 중치막, 창의)	紬(바지, 대님, 허리띠, 행전)	無紋段(습신) 綿布(버선)	無紋段(악수)	無紋段(떡목) 花紋段(소낭)
李益烜 (1782卒)	無紋段(복건)	無紋段(심의)	無紋段(대)	無紋緞(중치막 <sup>2</sup> , 소창의) 紬(적삼)	無紋段(습바지) 紬(바지, 행전)	無紋段(습신)	無紋段(악수)	無紋段(떡목)
李沈應 (1879卒)	無紋緞(복건, 망건)	苧布(심의)	—	無紋緞(중치막, 소창의, 저고리, 한삼)	無紋緞(단고, 겹고, 행전)	無紋緞(습신, 버선)	—	無紋緞(떡목, 소낭)

의 신발류는 이용태의 마포를 제외하고는 전 시대에 걸쳐 무문단으로 만들었다. 幌手와 幌目도 이석명의 것이 평건직물로 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무문단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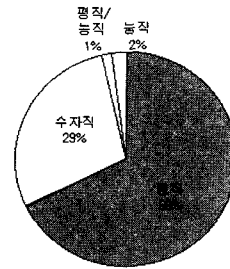
의원군(1722)의 염습의를 의원군과 물년이 가장 가까운 두 분, 즉 물년이 24년 앞선 최숙(1698)의 것과 60년 이후인 이익정(1782)의 것을 비교하였다. 단령에 화문단을 사용하였는데 걸감에는 운문으로 하고 안감은 연화만초문으로 시문한 점, 두의와 신발을 무문단으로 한 점, 악수와 떡목을 결은 무문단 안은 화문단(연화만초문)으로 사용한 점, 상 하의에 여러 종류의 평건직물과 화문단 등을 고루 사용한 점등이 최숙의 것과 매우 유사한 직물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익정 염습의용 소재 유형은 대부분 공단을 사용하여 60년 전의 의원군 것보다 97년이나 후에 돌아가신 이연응(1879)의 것과 오히려 더욱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이익정 이후 염습의용 직물유형에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사를 종합하면 염습구용 직물유형이 시대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의원군시기까지는 평건직물, 화문단, 무문단이 고루 사용되었다. 의복용으로는 주종류나 화문단의 사용이 많았고 두의, 습신, 악수, 떡목 등에만 무문단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말기로 갈수록 평건직물이나 화문단의 사용은 줄고 무문단의 사용이 늘어나 의복도 점차 무문단 일색이 되었다. 이러한 출토사례에서 보인 직물사용의 경향은 <표 2>에 정리된 문헌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 IV. 제직법 분석 및 출토직물의 명칭

건직물 중에는 평직의 직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자직이 많았으며,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넣은 花紋紬와 능직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넣은 花紋綾도 소량 출토되었으나 익조직의 紗, 羅 종류는 한 점도 없었다.

즉, [그림 4]와 같이 평직이 전체의 68%나 되고, 수자직이 29%로서 출토직물의 97%는 평직과 수자직으로 되었으며 중조직과 익조직은 한 점도 없었다.<sup>1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사용한 평



[그림 4] 출토직물의 조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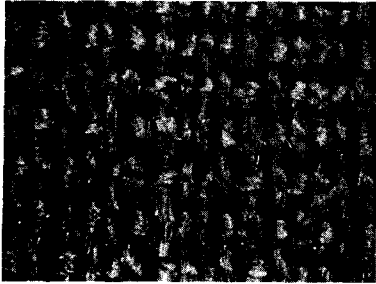
건직물과 수자직 건직물의 제직특성에 따른 명칭구분 방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평직물

평건직물의 종류는 크게 紬, 絹, 絹가 있다. 紬는 일반적으로 면주를 말하며 누에고치의 부산물이나 설면자, 폐충의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短絲를 정련한 후, 방적과정을 거쳐 만든 저급의 방적사로 짠 건직물로 촉감이 부드러우나 광택이 적고 표면이 균질하지 못하다. 반면에 絹와 絹은 방적사가 아닌 상등품의 누에고치로부터 뽑은 가늘고 굵기가 일정한 長絲 상태의 상등급 실로 제직한 직물이므로, 면주에 비하여 조직이 치밀하고 얇으며 광택이 좋다.<sup>18)</sup> 특히 초는 대부분 정련을 하지 않은 생사로 제직하므로 견에 비하여 촉감이 뻣뻣하고 까슬거린다.<sup>19)</sup>

그러나 직물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하였기 때문에 생존연대가 1661~1722인 의원군의 출토직물을 분석할 때는 앞 단원에서 조사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紬, 細紬, 生絹, 熟絹로 구분하였으며 絹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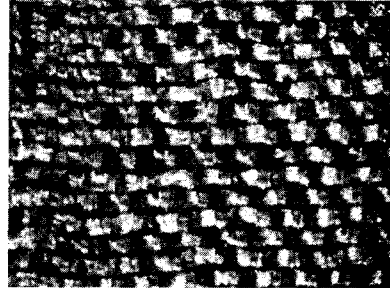
경위사를 짧은 紡績絲로 제직한 경우는 일반적인 紬 구분하였고, 방적사는 아니어도 실의 품질이 고르지 않고 굵으며 길게 연결되지 않은 중품이나 하품의 견사로 제직하여 촉감이 부드러우나 광택이 적고 두꺼운 직물도 주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가늘고 균질한 長絹絲로 제직하여서 직물의 밀도는 높으나 두께는 얇고 표면이 균질하고 매끄러운 촉감의 직물들은 細紬로 구분하였다. 세주는 견과 동일한 평건직물이라고 생각되지만 1700년대부터는 문헌자료에 이미 견이라는 명칭



[그림 5] 주(no 53), 평직(15배)

은 없어지고 대신 상등품 주의 명칭이 많아졌다. 당시 특정한 주의 종류는 앞 단원의 문헌조사에 기록된 方紗紬, 花絲紬, 白紡紬, 禾花紬라는 명칭이외에도 抗絲紬, 潞州紬, 鮮紬, 花紗紬 등 다양한 상품명칭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특정한 주의 명칭까지 구분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분화하지 못하고 크게 細紬의 범위에 넣었다. 또한 세주에 비하여 실이 더 가늘고 뽀뽀하여서 직물이 얇고 가벼우며 표면이 까슬까슬한 것은 生絹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초의 경위사 밀도는 세주보다는 낮고, 면주 보다는 높지만 경위사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직물의 표면 커버율이 낮아 면주보다 성글고 얇게 느껴진다. 이번 유물에서 초는 대부분 生絲를 사용하여 까슬까슬한 촉감을 보였으나 몇 점은 다시 정련하여 부드러운 熟絹도 있었다. 숙초와 세주는 실이 가늘고 부드러운 점은 유사하나 숙초가 세주에 비하여 직물의 표면 커버율이 낮았다. 많은 평견직물 중에 면주, 세주, 숙초, 생초의 대표적인 사례만을 추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도포(no.53)의 걸감으로 쓰인 면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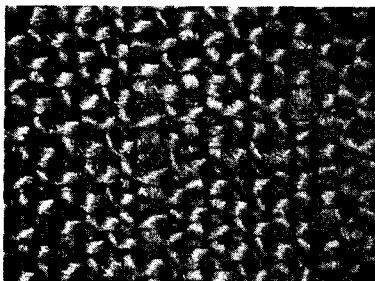


[그림 6] 세주(no 53안), 평직(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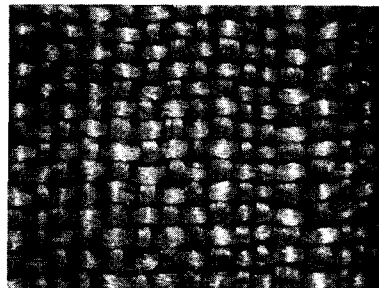
이다. 경위사 밀도는 68×47/inch이고 직물의 두께는 0.23mm이다. 경위사로 사용한 실은 견방사 종류로 잔털이 많고 광택이 적으며 굵기가 일정하지 못하다. 경위사 모두 Z연의 꼬임을 주어 직조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직물의 물성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광택이 적으나 촉감은 부드럽다.

그러나 도포(no.53)의 안감으로 사용된 직물은 상등품의 잠사를 사용하여서 표면이 균질하고 광택이 있으며 매끄러웠다. 따라서 전 시기의 견과 같은 종류이며 동시에 17세기『殯殿都監儀軌』에 많이 기록된 노주주와 같은 특정한 고급주로 생각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경위사는 좋은 長絹絲를 사용하여 잔털이 없고 광택이 많다. 경위사 밀도는 걸감보다 높아 87×83/inch이며 두께는 0.08mm로 매우 얇다. 걸감보다 밀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물이 얇은 것은 경위사가 가늘며 꼬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도포는 걸감보다 안감의 품질이 더 좋은 것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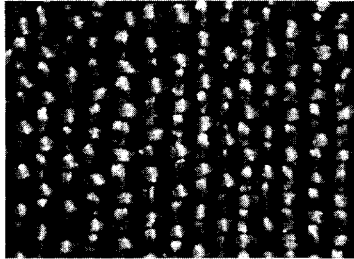
[그림 7]은 대창의(no.24)에 사용된 직물로 역시 거친 주의 일종이다. 밀도는 74×68/inch이며 경위사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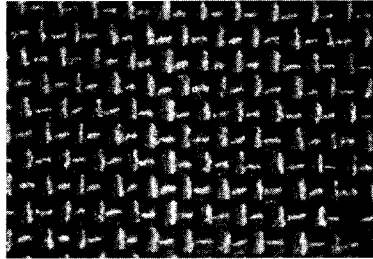
[그림 7] 주(no.24), 평직(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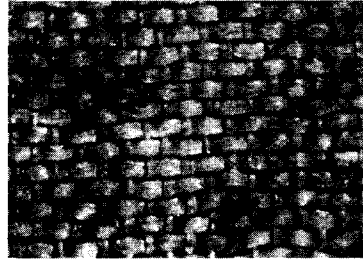
[그림 8] 주(no 21), 평직(15배)



[그림 9] 생초(no 23), 평직(15배)



[그림 10] 세주(no 2), 평직(15배)



[그림 11] 생초(no 33), 평직(15배)

두 Z연의 꼬임을 주었고 두께는 0.17mm이다. [그림 5]보다 경위사 밀도는 높으나 직물의 두께는 더 얇고 표면이 균질하였다. 같은 면주 종류라 하여도 [그림 5]보다 밀도는 높으나 두께가 더 얇은 이유는 경위사로 방적사가 아닌 中絹絲를 썼기 때문이다. 직물의 물성은 촉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나 광택이 적다.

[그림 8]은 片衣(no.21)에 사용된 직물로 역시 면주의 일종이다. 경위사 밀도는 68×82/inch이고 두께는 0.18mm로 비교적 밀도가 높고 지질이 치밀한데, 특이한 점은 경사를 끼울 때 2올은 무연의 長絹絲, 2올은 Z연의 紡績絲를 사용하였으므로 직물의 표면에 세로줄이 나타났다.

[그림 9]는 광수주의(no.23)의 걸감으로 사용된 생초의 일종이다. 경위사 밀도는 76×84/inch로 면주보다 높으나 실이 가늘어서 직물의 표면 커버율이 낮게 나타난다. 경위사로 사용한 실은 장견사 종류로 잔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굵기도 균일하였다. 정련을 하지 않은 생絲라서 직물의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뻣뻣하였다. 경사는 약한 Z연에 위사는 꼬임을 주지 않았고 두께는 0.18mm이며 직물의 폭은 36cm이다.

[그림 10]도 대대(no.2)에 사용된 細細의 일종이다. 경위사 밀도는 92×64/inch로 경사의 밀도가 매우 높으나 직물의 두께는 0.13mm 정도로 얇다. 경위사로 사용한 실은 장사 종류로 잔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굵기도 균일하였다. 위의 면주 확대도와는 달리 장견사를 사용하여 실의 굵기가 균일하고 광택이 있다. 따라서 지질이 매우 치밀하고 매끄러웠으며 광택이 있다. 경위사는 꼬임을 주지 않은 무연사이다. 염습의에 관한 문헌기록에 대대용으로 특정한 주인 方紗紬, 禾花紬와 같은 명칭이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이 대대용의

세주도 방사주나 화화주와 같은 특별한 細細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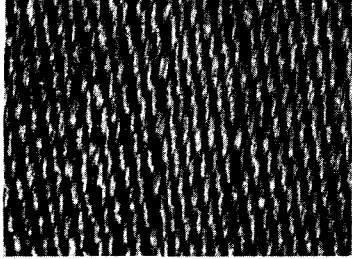
[그림 11]도 명정(no.33)에 사용된 생초의 일종으로 경위사 밀도는 73×81/inch로 밀도가 비교적 높으나 직물의 두께는 0.13mm 정도로 얇다. 경위사로 사용한 실은 장사 종류로 잔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굵기도 균일하였다. 하지만 경사에 비하여 위사 굵기가 4배나 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가로줄이 나타났다. 정련을 하지 않은 생사로 제직하여 직물의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뻣뻣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직물을 생초로 구분하였다. 직물의 폭은 62cm이고 식서는 5mm이다. 명정용 직물은 廣終幅을 쓴다는 기록<sup>20)</sup>과 같이 다른 출토 직물에서도 너비 60cm이상의 광폭초를 많이 썼다.

이상은 의원군 평견직물 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설명하였다. 의원군 묘에서 출토된 평견직물의 평균밀도는 71.18×74.52/inch이고 평균두께는 0.14mm로 그 전시기에 출토직물들에 비하여 밀도가 높고 비교적 얇은 편이다. 직물의 폭은 좁은 것은 34cm부터 있으며 가장 넓은 것은 62cm까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면주와 같은 품질이 낮은 주종류는 좁은 폭이고, 품질이 좋은 세주(견)나 초는 넓은 폭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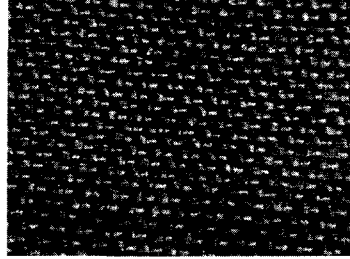
## 2. 수자직

단류는 모두 5매 수자직으로 제직되었으며 크게 구분하면 무늬가 있는 花紋段과 무늬가 없는 無紋段이 있다. 유물에 사용한 단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문헌자료의 고찰결과에 따라서<sup>21)</sup> 무늬가 있는 것은 화문단, 운문단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연화문, 길상문, 학문과 같은 구체적으로 사물을 치칭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무늬가 없는 것은 무문단, 모단의 명칭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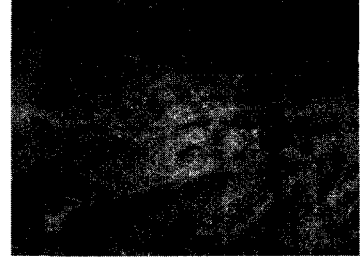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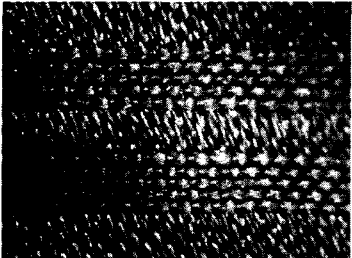
[그림 12] 화문단(no19안), 바탕 5매 경수자직(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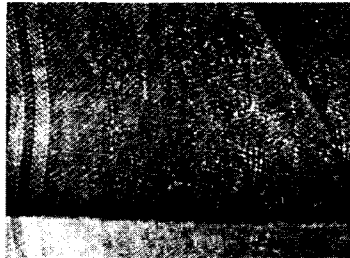
[그림 13] 화문단(no19안), 무늬 5매 위수자직(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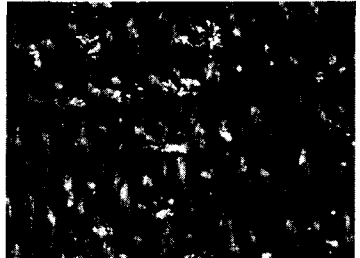
[그림 14] (no 19안)필단의 끝



[그림 15] (no 19안)필단의 끝(10배)



[그림 16] 필단 끝(no 19안), 금사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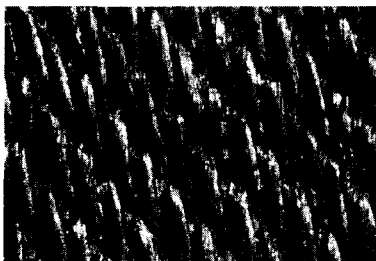


[그림 17] 필단 끝(no 19안), 금사부분(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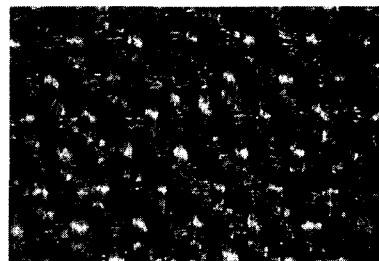
용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문헌자료에는 이러한 명칭 이외에 禾漢緞, 5매수자직의 五絲緞, 8매수자직의 八絲緞이 있으며 공납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貢緞 등이 있는데, 그러한 명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의원군의 유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화문단의 경우는 바탕은 5매 경수자직, 문양은 5매 위수자직의 反織法으로 제작되어 표면 바탕인 경주자는 이면에서 위주자로 나타나고, 표면 무늬의 위주자는 이면에서 경주자로 보인다. 비수는 일반적으로 2飛가 많은데 이번 유물에는 3飛로 제작된 화문단이 단령, 철릭, 배자용, 문단에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단직물 사례를 선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그림 13]은 단령(no.19)의 안감에 쓰인 화문단으로 5매 경수자직 바탕에 위수자직으로 무늬를 제작하였으며 비수를 3飛로 하였다. 경위사 밀도는 294×131/inch이고 두께는 0.17mm이다. 밀도는 높은 편이나 경위사가 가늘어서 직물의 두께가 비교적 얇다. [그림 14], [그림 15]는 필단의 끝부분으로 위수자직으로 가로줄 무늬를 2줄 넣어 마감 처리하였다. 또한 단령 깃의 안쪽 시접에는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금사가 좁은 면적으로 들어있었다. 금직은 직물의 표면에 시문된 것이 아니고, 안쪽의 극히 좁은 시접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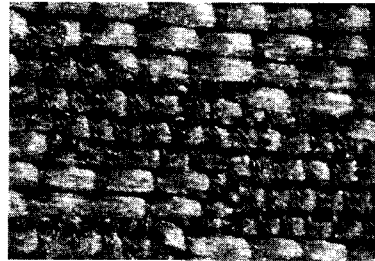
[그림 18] 무문단(no 29), 표면 5매경수자직(30배)



[그림 19] 무문단(no 29), 이면 5매위수자직(30배)



[그림 20] 화문능(no 31), 4매경능직 (15배)



[그림 21] 화문주(no 36선), 평직/4매경능직(15배)

분에만 있었기 때문에 금선단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림 18], [그림 19]은 玄(no.29)에 사용된 무문단으로 5매 경수자직, 2飛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경위사 밀도는 259×80/inch로 위사 밀도가 다른 직물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경사의 밀도가 위사의 3배가 넘는다. 직물의 두께는 0.17mm 정도로 얇다. 직물의 폭은 65cm 이고 식서는 4.5mm이다. 경사는 약한 Z연으로 꼬임을 주었고 가늘고 광택이 있었던 반면에 위사는 굵고 광택이 없으며 꼬임이 없었다. 현은 원래 검정색 혹은 아청색 직물을 사용한다. 경위사 모두 검정색 혹은 아청색이었을 텐데 이 유물에서는 경사는 옅은 갈색을 띠고 위사는 더 짙은 고동색을 띠었다. 즉, 실의 방적상태에 따라 염색 전회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상은 의원군 단직물 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설명하였으며 전체 단류의 경위사 평균 밀도는 282.47×103.18/inch이고 직물의 평균두께는 0.22mm이며, 직물의 폭은 62~69cm 정도이다. 경사는 대부분 Z연이었으나 S연도 3점 있었다. 위사는 대부분 무연이었으며 Z연은 2점만 있었다.

의원군의 출토직물 중에는 위에서 설명한 평직물과 수자직의 단종류 이외에 능직으로 제작한綾도 2점 있고,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제작한紋紬도 1점 있다.

[그림 20]는 전복(no.31)에 사용된 직물로 4매 경릉 직바탕에 4매 위릉직으로 무늬를 제작하였다. 능선의 방향은 우향이다. 직물의 경위사 밀도는 145×64/inch로 경위사의 밀도비는 2.27인 비교적 치밀한 조직의 능직물이다. 경위사 모두 무연사를 썼고 직물의 두께는 0.1mm 정도로 매우 얇다. 직물의 폭은 39cm이고 식서

는 8mm이다.

[그림 21]은 전복(no.36)의 선을 두른 부분으로 평직 바탕에 4매 위능직으로 무늬를 표현하였다. 경위사 밀도는 204×67/inch이고 두께는 0.25mm이다. 경사보다 4배 더 굵은 위사를 사용하였으며 바탕부분은 경사 2올을 함께 넣고 무늬 부분에서는 경사 한 올은 이면으로 보내고 한 올만 사용하였다. 이것은 위사로 표현되는 무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경사는 약한 Z연이며 위사는 무연이다.

#### IV. 결 론

의원군 묘에서 출토된 직물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출토된 직물 유형의 공통적 특징은 면, 마직물은 극소수이고 견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견직물의 제작법은 주로 평직과 수자직으로 되었다. 복식의 소재만을 정리하면 의원군은 29벌 중 苧布 深衣와 면포 버선을 제외하고 27벌 모두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4벌만 문직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21벌은 모두 무늬가 없는 직물이었다. 무늬가 없는 주, 초, 무문단의 품질은 무늬가 없어서 화려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상등품의 견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직물의 명칭을 정할 때에 그 당시 문헌자료에 기록된 명칭을 근거하여 평견직물은 紬, 細紬, 生納, 熟納로 구분하였으며 실제로 제작법은 모두 평직이므로 사용한 견사의 상태나 경위사 밀도를 구분의 근거자료로 하였다. 또한 수자직의 직물은 무늬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花紋段이라 하고 특별히 구름무늬나 보문의 종류만 雲紋段, 寶紋段라 하였으며 무늬가 없는 것

은 無紋段으로 명명하였다. 평직바탕에 능직이나 수자직으로 무늬를 넣은 것을 花紋紬, 花紋綉로 구분하였다.

의원군 출토직물 중 습구용 직물들을 18세기 후반의 출토자료 및 문헌자료와 비교하면 의원군 시대까지는 평견직물, 화문단, 무문단이 고루 사용되었음에 반하여 18세기 후반부터 평견직물과 화문단이 줄고 무문단의 사용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평견직물이나 단류의 명칭에서 좀더 자세한 이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 문헌이나 유물 자료가 발굴될 때마다 보충하도록 과제로 남겨둔다.

### 참 고 문 헌

- 1) 이번 조사에서는 묘주가 돌아가실 당시의 전체 직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옷감류가 여러 조각으로 나왔을 경우 각각 숫자를 세었다. 예를 들면 것에 옷감이 다른 곳에 다시 사용되었어도 각각 1점으로 처리하였다.
- 2) 연소시험으로 쉽게 되나 유물이 손상되므로 연소 및 화학약품실험은 금하였다.
- 3) 宋時烈, 『宋書續拾遺』, 1689.
- 4) 尹行恮, '泣血錄 I', 文玉杓 外(譯), 『朝鮮時代 冠婚喪祭 (IV): 喪禮篇(3)』, 精神文化研究院, 1999, 51-52.
- 5) 『肅宗, 殯殿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13549.
- 6) 보고서마다 직물의 명칭을 다르게 호칭하였으므로 직물의 종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명칭을 조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즉 평직의 견직물은 평견직물, 수자직의 직물중 무늬가 있는 것은 화문단, 없는 것은 무문단, 모시는 저포, 베는 마포, 무명은 면포로 정리하였다.
- 7) 이순원 외,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 8) 조효숙,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1.
- 9) 고부자,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 유물연구', 『韓國服飾』, 1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2001, 85-104.
- 10) 이은주,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복식 고찰', 『안동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 11) 박성실,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 소고', 『韓國服飾』 14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6, 49-98.
- 12) 이은주, '조선시대 수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韓國의 壽衣文化』, 2002, p. 87.
- 13) 보고서에는 明紬로 명명하였다.
- 14) 보고서에서는 綉로 명명하였다.
- 15) 논문에서 綾織, 絹, 明紬라고 명명하였다.
- 16) 보고서에서 紬와 細紬로 명명하였다.
- 17) 단령 안감의 시접부분에 금사를 사용한 흔적이 조금 나타났으나 겉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물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 18) 王庄穆 主編, 『中國絲綢辭典』,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6, 148-155.
- 19) 趙豐, 『織物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 1992, 33-37.
- 20) 조효숙, 앞의 책, 149-150.
- 21) 『家禮附贅』, 권3, 喪禮.
- 22) 조효숙, 앞의 책, 154-155.
- 23) 앞 글, 154-155.